

## ■ 수능 대비 막바지 학습 전략

# 올 수능 9월 모의평가 수준…EBS 교재 집중을

## 가채점 결과로 수시 결정하고 수능 올인 고난도 문제 성과 가를듯…변별력 키워야

오는 11월 8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언어 영역은 이번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워지고, 수리·외국어 영역은 같은 수준의 난이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모의평가 후 수시 원서접수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바로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지원 대학을 결정하고 수능 준비에 힘을 쓸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수시에 집중한다고 차치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면 오히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입시기관인 전 학사가 이번 모의 수능을 바탕으로 분석한 수능 출제경향과 학습요령을 소개한다.

◇ 올 수능 9월 모의평가 수준 될 듯 = 지난 4일 치러진 모의평가에서 언어 영역이 쉽게 출제돼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고난도 문제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지문이 EBS에서 출제됐다. 수험생들은 체감난이도가 낮아진 덕분에 어렵지 않게 시험을 치렀다. 그러나 상위권 학생들을 가려내는 데는 한계

가 있을 것으로 보여 실제 수능에서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수리, 외국어 영역은 이번에 다소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 1%에는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나 변별력을 고려했을 때

현재 난이도가 수능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 외국어 영역이 전년도에 지나치게 쉽게 출제돼 상위권 학생들의 대학 지원에 혼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이런 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은 기간 동안 수능이 쉽게 출제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더구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일부 어려운 문제들을 푸느냐, 못 푸느냐에 따라 성적이 같다는 만큼 이를 문제 수준에 맞춰 공부해야 한다.

◇ EBS 연계출제 비율은 여전히 높아=언어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부터 대부분의 지문은 EBS 교재에서 출제하고 있다. EBS 이외에서 발췌한 지문의 경우 문제가 쉽게 출제돼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소 난이도가 높았던 수리, 외국어영역의 체감연계율은 낮았을 수 있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수리영역은 직접연계 문항은 줄어들고 EBS 유사문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연계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외국어 영역의 지문 연계율은 70%로 높았지만 문항 선택지를 깨다롭게 출제한 문항들이 있었다. 남은 기간 동안 EBS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단순히 문제 풀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문제 해결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적용되는 개념이나 내용은 무엇

인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수시·정시 동시에 고려해야=수능 성적은 정시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시에서도 중요한 변수다. 다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높게 적용하는 우선선발을 실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높은 우선 선발의 경우 일반선발에 비해 실질경쟁률은 낮아 자격조건만 만족한다면 학적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수시에 집중한다고 수능 학습을 소홀히 하게 되면 오히려 수시에서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더라도 수능 학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수능을 우선하는 학습계획을 먼저 세우고 대학별 고사를 준비해야 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문화리더들 조선대 강단 선다

### 신영복 교수·이병률 시인 등 ‘문화초대석’ 강의

오는 18일에는 윤재갑 큐레이터가 ‘Post 89와 세계 현대 미술’을 주제로 강연한다. Post 89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표현의 자유가 크게 확대된 중국미술계를 의미한다.

10월 2일에는 이병률 시인이 ‘여행은 상상의 빼개가 되고 창조의 삶이 된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찬란’, ‘바람의 사랑활’ 등을 발표한 이 시인이 2005년 폐년 첫 여행에 세이 ‘글립’은 50만 부가 팔렸으며 7년 만에 선보인 후속편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역시 지난 7월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0월 16일에는 철학자 황광우 씨가 ‘소크라테스의 사당’을 주제로 강연한다.

10월 22일에는 안재훈 감독이 ‘치유의 힘이 있는 그림, 감동이 있는 빛깔’을 주제로 강연하며, 11월 13일에는 신학자 김원의 씨가 ‘신화, 인간을 말하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마지막 강좌인 11월 27일에는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강연과 더숲 트리오 공연으로 꾸며진다. 문의는 062-230-6179. /채희증기자 chae@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강좌는 지난 4일 박선희 책임교수(신문방송학과)의 ‘문화리더란 누구인가?’ 강의를 시작으로, 격주 화요일 오후 4시~6시 서서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강좌는 지난 4일 박선희 책임교수(신문방송학과)의 ‘문화리더란 누구인가?’ 강의를 시작으로, 격주 화요일 오후 4시~6시 서서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강좌는 지난 4일 박선희 책임교수(신문방송학과)의 ‘문화리더란 누구인가?’ 강의를 시작으로, 격주 화요일 오후 4시~6시 서서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강좌는 지난 4일 박선희 책임교수(신문방송학과)의 ‘문화리더란 누구인가?’ 강의를 시작으로, 격주 화요일 오후 4시~6시 서서홀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들을 초청해 생생한 육성을 들어보는 시간이다.

기초교육대학(학장 임재진)이 지난해 개설해 큰 호응을 얻은 ‘문화초대석’(책임교수 박선희)은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리더 가운데 특히 학제간, 장르간 통섭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